

재해구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태풍 "매미"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준다는 것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빈 손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
나 무엇하나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
떨리는 내 손을 포개어 엮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스스럼없이 준다는 것
그것은
빼앗는 것보다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세상 전체를 소유하는 것보다
부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대여
가진것이 없기에
남에게 줄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누구에게 준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도현







재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목차

I 조사개요 7

1.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7
2. 조사대상자 8
3. 조사과정 및 기간 9
4. 조사방법 9
5. 조사의 내용 10
6. 분석 및 자료 제시 방법 10

II 조사결과 11

1. 재해 발생 직후 당면한 문제점 11
2.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문항 13
3.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한 문항 21
4. 기타 문항 26

III 본 조사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35

I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200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 13개 시·도, 119개 시·군·구에서 247명의 인명 피해, 51,479억 원의 재산 피해, 그리고 27,562세대 63,0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해 초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192명이 사망(추정)하고 148명이 부상하였으며, 실종자(미확인)가 170명에 달하였다.

오늘날 재난·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은 나날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재난·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전국적으로 497명의 인적 피해(사망 119명, 부상 378명)와 42,22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때아닌 3월 폭설로 인해 6,734억원(3월26일 현재)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들이 수년간 논의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경우 전국에서 42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재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003년 태풍 “매미”는 73만 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피해지역의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적 위주의 인력 배치와 언론 보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로 인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지역에 고르게 배치되지 못해 일손 편중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지역에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 지 몰라 당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재해 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는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자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본 조사는 경남 지역의 경우는 경상남도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원 지역은 강원도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2. 조사대상자

1) 조사대상자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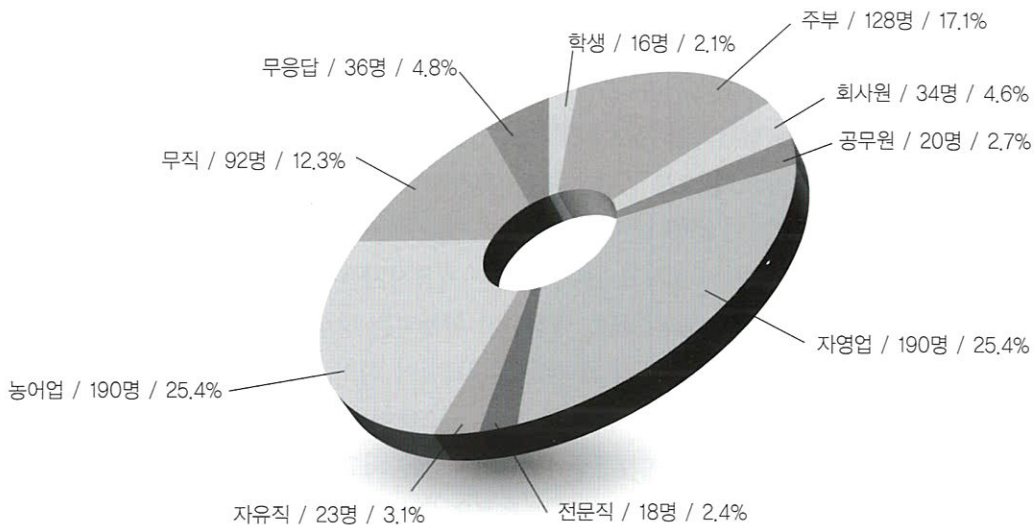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국 8개 시·군(마산시, 남해군, 밀양시, 태백시, 영양군, 강릉시, 삼척시, 고성군)을 선정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선표집법(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 747명 중 남자가 399(53.4%)명, 여자가 342(45.8%)명, 그리고 무응답이 6(0.8%)명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1.2세로 20세부터 95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표 1〉은 조사대상자를 직업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아래의 〈표 1〉을 살펴보면, 자영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90(25.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부(128명,

〈표 1〉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 / 빈도(747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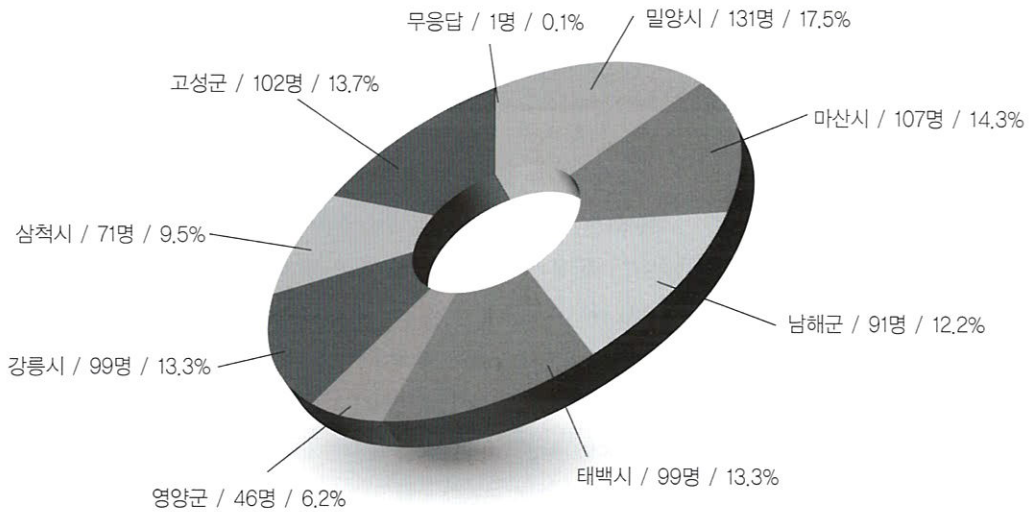


17.1%)와 무직(92명,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분류에서 자영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주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조사지역이 대부분 대도시가 아닌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이었다는 사실과 피해지역 내의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는 조사대상자를 거주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아래의 〈표 2〉를 살펴보면, 밀양시가 131(17.5%)명, 마산시가 107(14.3%)명, 남해군이 91(12.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별 분포 지역 / 빈도(747명) / 백분율(%)



3. 조사과정 및 기간

- 1) 예비조사 : 11월 1일 ~ 8일
- 2) 설문지 제작 : 11월 9일 ~ 23일
- 3) 표본집단선정 : 11월 24일 ~ 25일
- 4) 조사요원 선발 및 교육 : 11월 25일 ~ 12월 1일
- 5) 자료수집 : 12월 2일 ~ 23일
- 6) 결과분석 : 12월 24일 ~ 2월 20일
- 7) 보고서작성 : 2월 21일 ~ 3월 31일

4. 조사방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구조화된 문항과 비구조화된 문항이 혼합되어 구성되었다.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훈련을 받은 조사요원이 개별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5. 조사의 내용

질문지의 내용은 광범위한 문헌연구 및 관련 분야의 학자와 관계자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다. 질문지의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을 비롯해, 재해 발생 직후에 당면한 문제점,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문항,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관한 문항과 기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질문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질문지 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재해 발생 직후 당면한 문제점	재해 발생 직후 불편한 점, 필요한 물품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문항	대피소에서 지급되는 식사의 종류, 질(質), 지급 횟수, 양(量)에 대한 만족도, 지급을 바라는 간식류, 의류, 침구류에 대한 만족도, 의류와 침구류의 세탁 방법, 통신 시설, 전기 사용, 세안과 목욕 시설, 대피소의 위생상태, 대피소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절차와 처리 내용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개선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관한 문항	자원봉사자의 태도, 인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가장 큰 도움이 된 활동, 자원봉사자를 요청한 방법,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것,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기타 문항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방법과 건의사항,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재해대책본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 재해관련 교육의 경험 유무, 실시된 교육의 교육장소와 형태, 비상연락 전화번호의 확보 여부와 종류, 재해를 통해 느낀 점, 재해복구기간동안 도움을 받아 고마운 분들에 대한 소감

6. 분석 및 자료 제시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와 자료 입력 단계를 거친 후, 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SPSS Window(10.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 내용을 토대로 범주화 과정을 거친 후, 부호화하여 폐쇄형 질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II

조사결과

1. 재해 발생 직후 당면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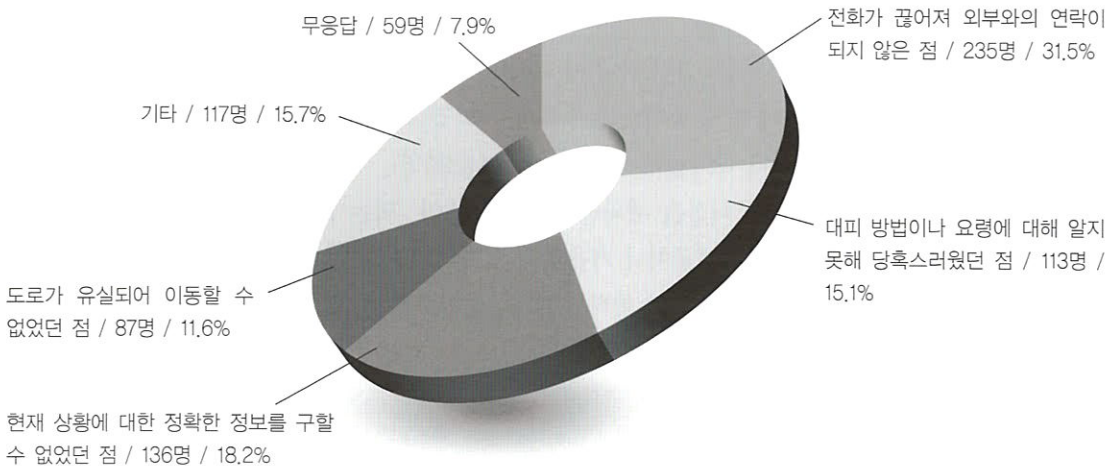
재해 발생 직후 경험한 불편한 점과 재해 초기(당일-3일 이내)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재해 발생 직후 불편한 점

아래의 <표 4>는 재해 발생 직후 경험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전화가 끊어져 외부와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5(3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없었던 점'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6(1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자신들의 안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안부를 확인하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표 4> 재해 발생 직후 불편한 점 항목 / 빈도(747명) / 백분율(%)



한편, '기타'에 응답한 사람은 117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15.7%에 달해 이에 대한 추가적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타' 항목에 대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5>에 제시되어있다. 아래의 <표 5>를 보면, '전기 공급이 중단된 점'이 45(38.4%)명, '침수로 인한 피해' 18(15.3%)명, '수도 공급이 중단된 점' 13(1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 초기 대응 차원에서 볼 때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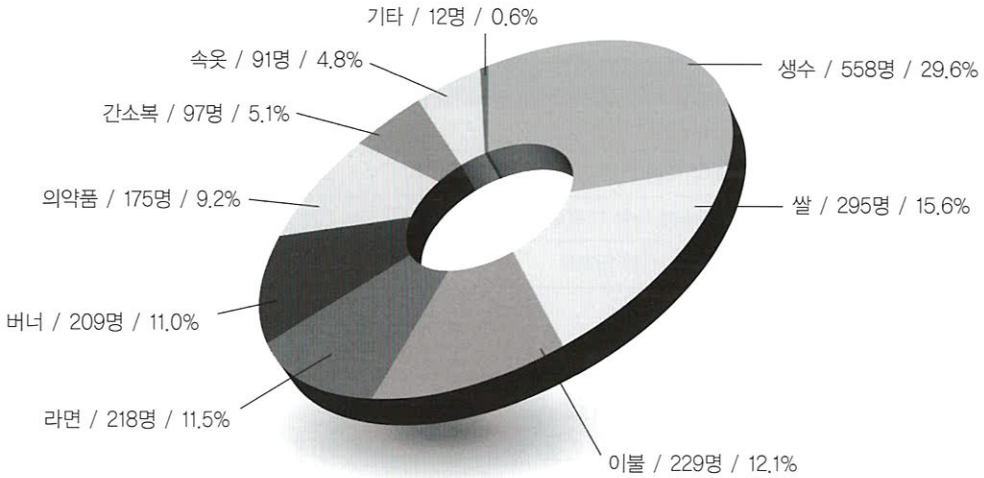
<표 5> 재해 발생 직후 불편한 점에 대한 기타 항목 항목 / 빈도(117명) / 백분율(%)



2) 재해 초기 가장 필요한 물품

아래 <표 6>은 재해 초기(당일- 3일 이내)에 가장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3개의 복수 응답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생수'가 전체 응답의 29.6%(5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쌀' 15.6%(295명), '이불' 12.1%(2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물품 중에서 이불을 제외한 4개의 물품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풍이 주로 여름이나 가을철에 일어나기 때문에 의류, 난방 등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기타' 응답으로는 '복구 장비' (5명, 0.2%), '초' (4명, 0.2%), '세면 도구' (3명, 0.1%)로 나타났다.

<표 6> 재해 초기 가장 필요한 물품 필요한 물품 / 빈도(1884명) / 백분율(%)



2.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문항

재해 기간 중 대피소 생활을 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대피소 내에서 지급된 식사의 종류, 식사의 질(質), 식사의 지급 횟수, 식사의 양(量)에 대한 만족도, 식사 이외에 지급되기를 바라는 간식류, 지급된 의류·침구류에 대한 만족도, 의류와 침구류의 세탁 방법, 대피소 내의 통신 시설, 전기 사용, 세안과 목욕 시설, 위생상태,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절차와 처리 내용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대피소에서 지급되는 식사와 관련한 만족도

대피소 내에서 지급되는 식사의 종류, 식사의 질(質), 식사의 지급 횟수, 식사의 양(量)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느낀 경우에는 1점, 불만족스럽다고 느낀 경우에는 2점, 보통은 3점, 만족스럽다고 느낀 경우에는 4점, 그리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느낀 경우에는 5점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표 7〉은 식사의 종류, 식사의 질(質), 식사의 지급 횟수, 식사의 양(量)에 대한 만족 정도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아래의 〈표 7〉을 보면 모든 문항에서 만족도 점수가 보통 수준인 3.0 근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들 간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지급되는 식사의 양에 대한 만족도가 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3.0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사 문제와 관련하여 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으나 식사의 질과 종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해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음식의 질을 고려한 식단의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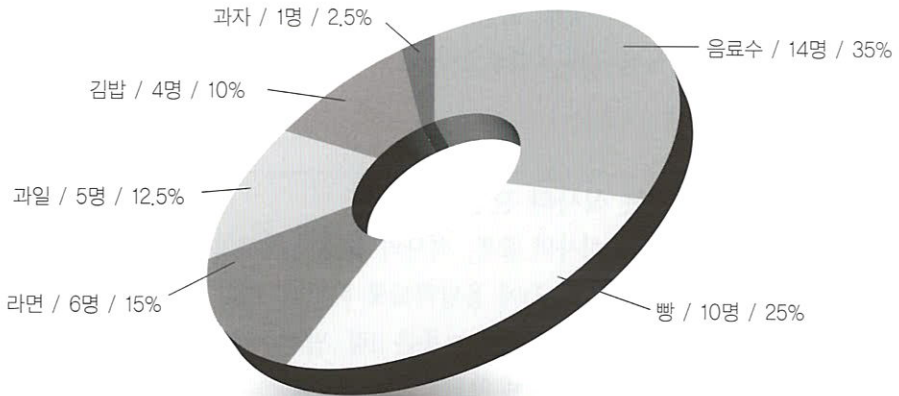
〈표 7〉 식사와 관련한 문항에 대한 평균

관련 문항	빈도(명)	평균
식사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	278	3.09
식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	283	3.00
식사의 지급 횟수에 대한 만족도	271	3.17
식사의 지급 양에 대한 만족도	281	3.28

2) 식사 이외에 지급되기를 바라는 간식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하루 3식으로 제공되는 식사 이외에 지급되기를 바라는 간식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아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음료수’라는 응답(14명, 2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빵’ (10명, 17.2%), ‘라면’ (6명,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복구활동으로 인한 활동량의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많은 칼로리 소비가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8〉 식사 외에 지급되기를 바라는 간식류 항목 / 빈도(58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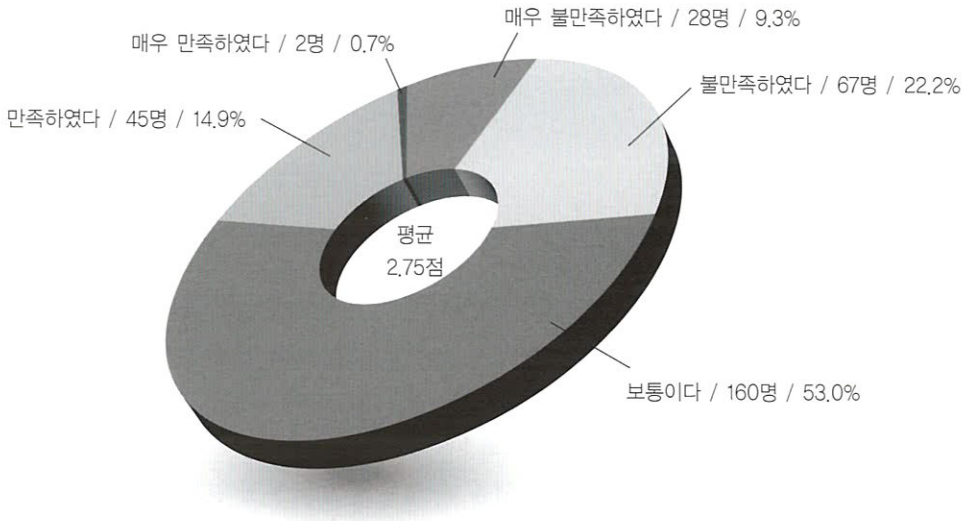
3) 지급된 의류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내에서 지급되는 의류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9〉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60(53.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였다’와 ‘매우 만족하였다’는 응답보다는 ‘불만족하였다’와 ‘매우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지급된 의류에 대한 만족

도 평균은 2.75점으로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지급된 의류에 대한 만족도의 문제는 기업이나 국민으로부터 지원되는 의류의 디자인과 치수는 한정된 반면, 이재민들의 특성(취향, 치수 등)은 다양해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향후, 다양한 측면(품질, 수량, 디자인, 종류 등)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연구를 통해 일정 정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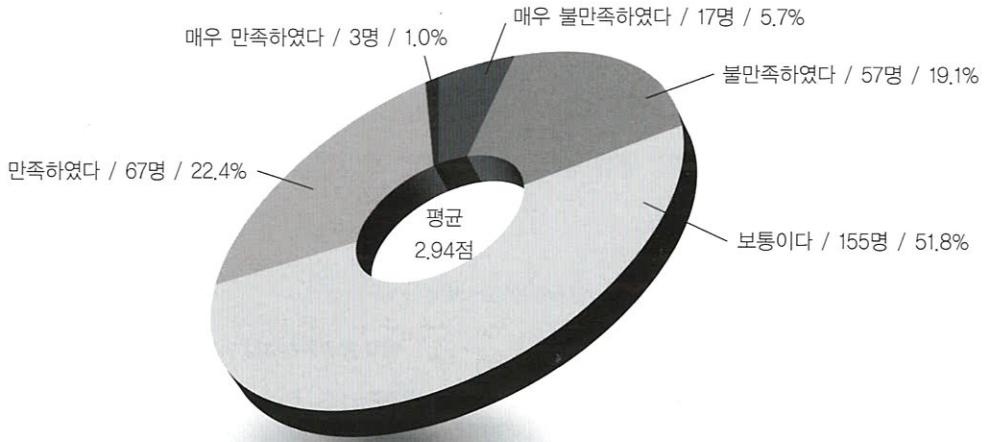
〈표 9〉 지급된 의류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302명) / 백분율(%)



4) 지급된 침구류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에서 지급되는 침구류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10〉을 살펴보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155(5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만족하였다' 라는 응답(67명, 22.4%)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침구류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4점으로 의류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보통이다' 라는 평균점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의류와 마찬가지로 침구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표 10〉 지급된 침구류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299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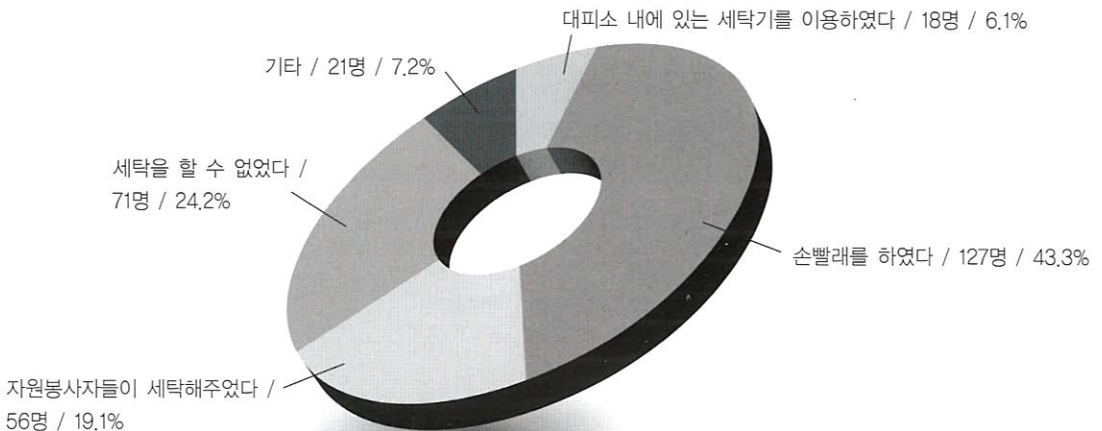


5) 의류나 침구류에 대한 세탁 방법

대피소 내에서 의류나 침구류의 세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표 11>은 의류나 침구류의 세탁 방법에 대한 결과표이다. 아래 표를 보면, '손빨래를 하였다' 라는 응답(127명, 4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탁을 할 수 없었다' (71명, 24.2%), '자원봉사자들이 세탁해주었다' (56명, 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나 침구류의 세탁은 위생을 고려해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여름철은 각종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을 할 수 없었다' 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손빨래를 해야하는 상황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1> 의류나 침구류의 세탁방법 항목 / 빈도(293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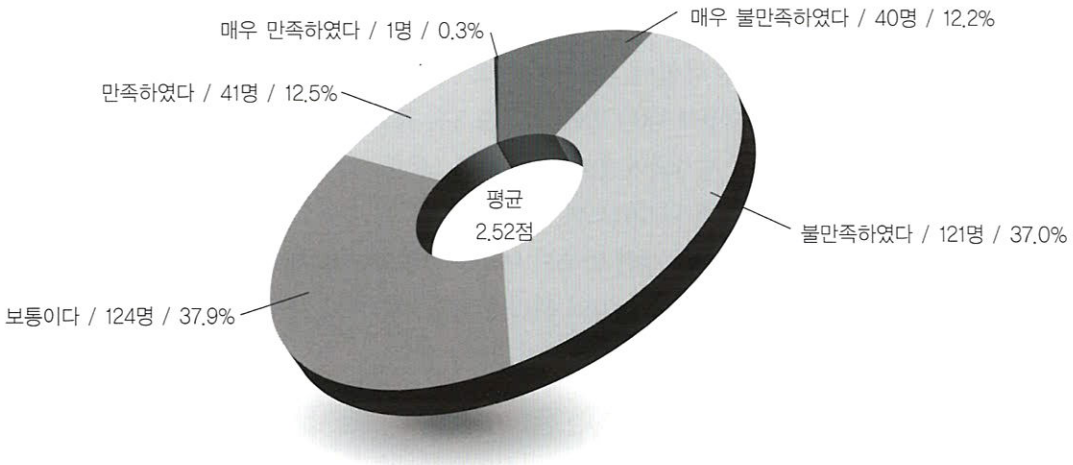


6) 대피소 내의 통신 시설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내의 통신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12>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124(37.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하였다' 라는 응답이 121(37.0%)명으로 나타났다. 대피소 내의 통신 시설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5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 발생 직후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 상황에서도 안부 확인과 같은 소식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통신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해 발생시 비상대피장소로 활용되는 시설(학교 등)에 재해 대비 통신시설(공중전화 등)의 설치 및 보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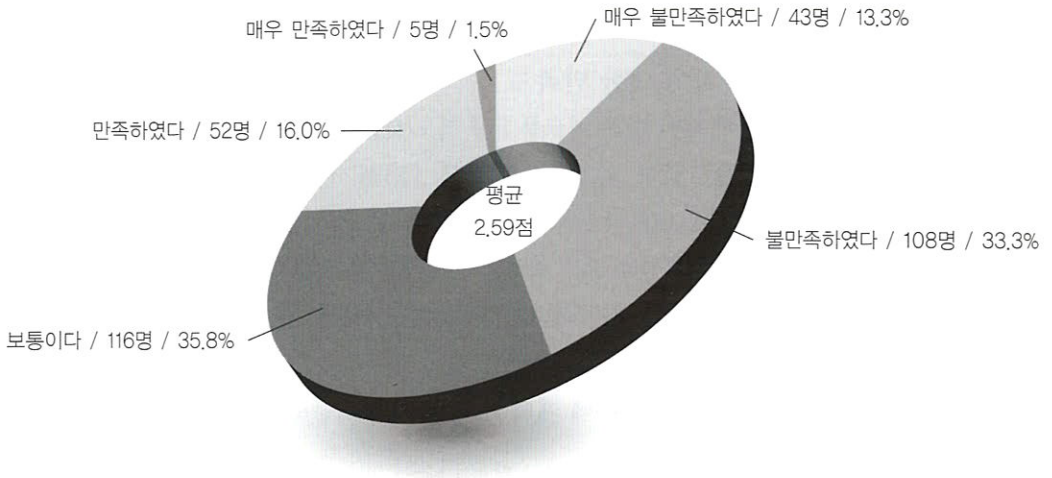
<표 12> 통신시설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327명) / 백분율(%)



7) 대피소 내의 전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내의 전기 사용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13>을 살펴보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116(35.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하였다' 라는 응답이 108(33.3%)명으로 나타났다. 대피소 내의 전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5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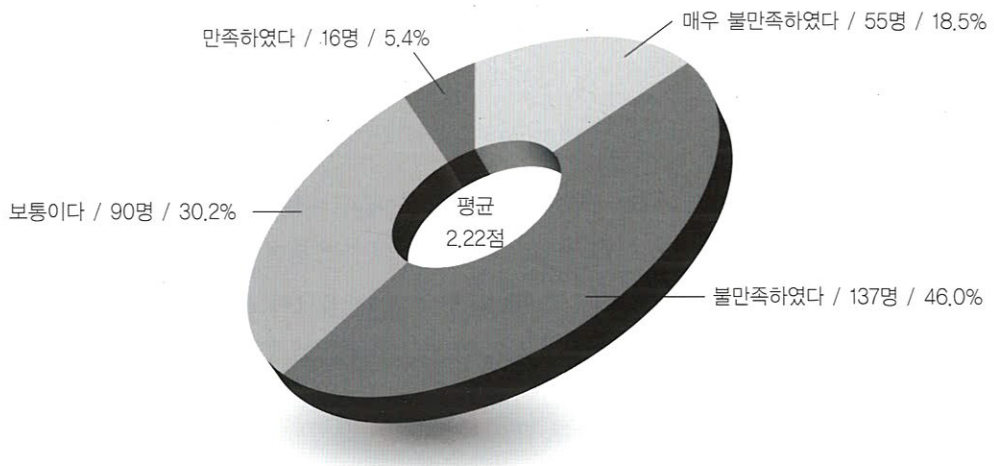
<표 13> 전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324명) / 백분율(%)



8) 대피소 내의 세안 및 목욕 시설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내의 세안 및 목욕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14>를 살펴보면, '불만족하였다' 라는 응답이 137(46.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90(30.2%)명으로 나타났다. 대피소 내의 세안 및 목욕 시설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2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복구활동으로 피곤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세안이나 목욕에 대한 욕구는 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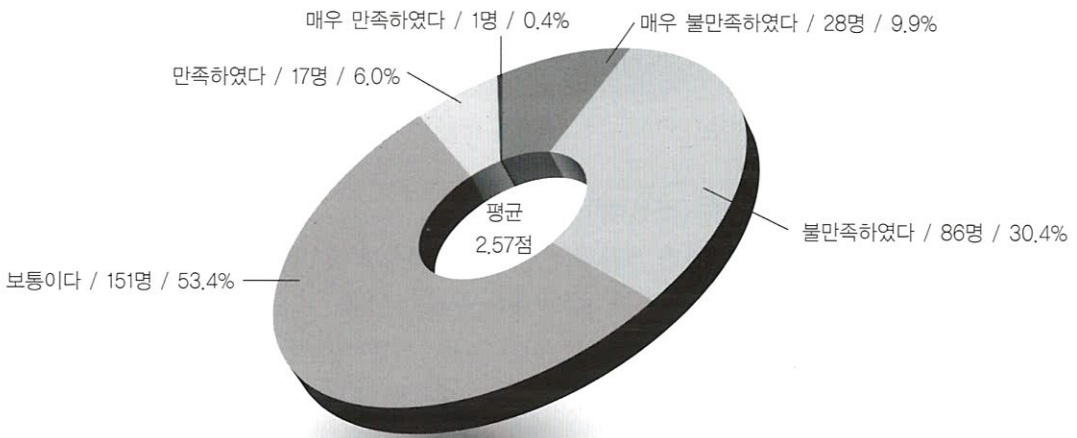
<표 14> 세안 및 목욕 시설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298명) / 백분율(%)



9) 대피소 내의 위생상태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내의 위생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15>을 살펴보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151(53.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하였다' 라는 응답이 86(30.4%)명으로 나타났다. 대피소 내의 위생 상태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5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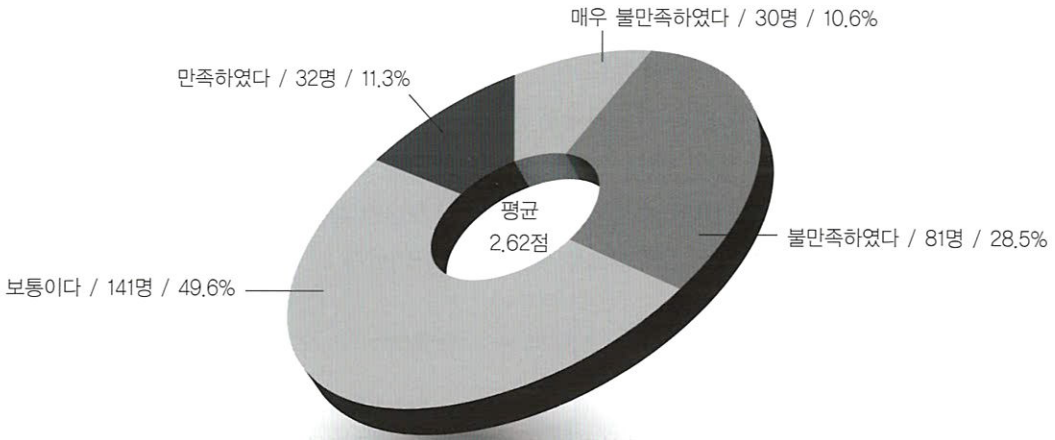
<표 15> 대피소의 위생 상태에 대한 만족 항목 / 빈도(283명) / 백분율(%)



10) 대피소 내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대피소 내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절차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16>을 살펴보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141(49.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하였다' 라는 응답이 81(28.5%)명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하였다' 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대피소 내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6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6> 대피소 불편사항의 건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284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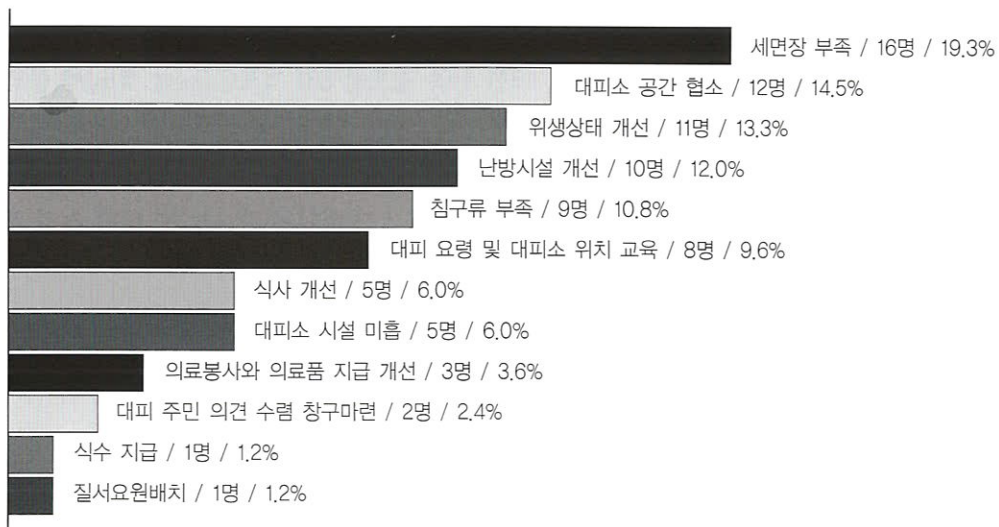


11) 대피소 생활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대피소 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아래 <표 17>에 제시되어있다. 전체 응답자 83명 중, 16(19.3%)명이 '세면장 부족'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이 '대피소 공간 협소' (12명, 14.5%), '위생상태 개선' (11명,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개선점으로 언급된 사항들이 대부분 대피소의 시설(세면장 부족, 공간 협소, 난방시설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17> 대피소 생활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항목 / 빈도(83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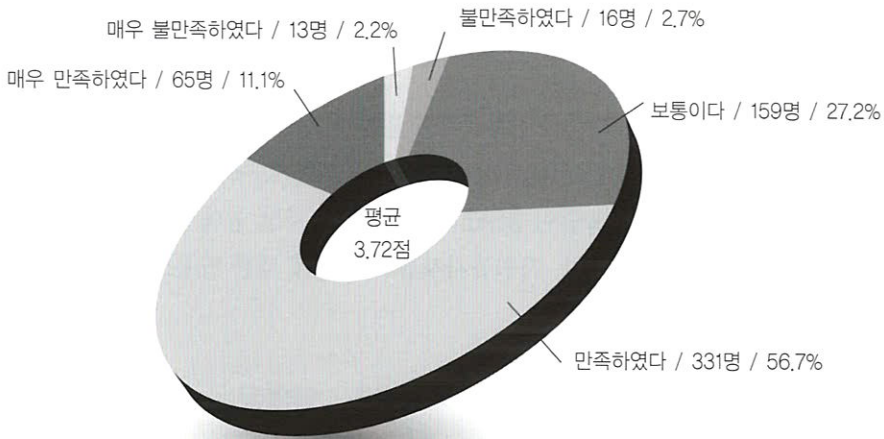
3.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한 문항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태도, 자원봉사자의 인원,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 자원봉사자 필요시 자원봉사자 요청 방법,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물품,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1) 자원봉사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태도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18>은 자원봉사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 18>를 보면 '만족하였다'라는 응답이 331(5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59(27.2%)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7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8> 자원봉사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584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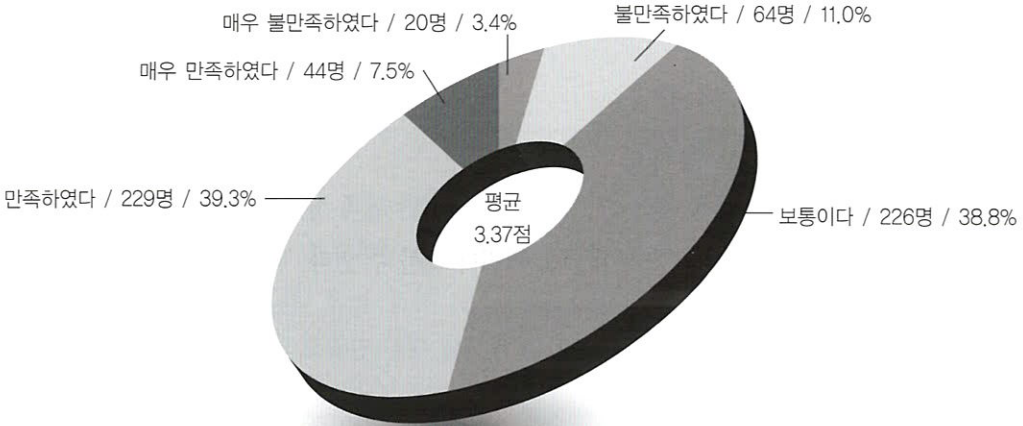


2) 자원봉사자의 인원에 대한 만족도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인원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19>는 자원봉사자의 인원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 19>를 보면 '만족하였다'라는 응답이 229(39.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26(38.8%)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의 인원수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3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태도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낮은 수치로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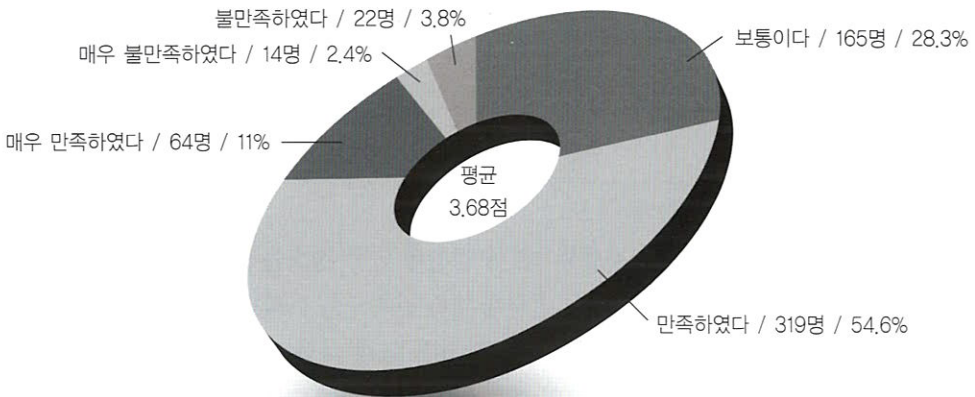
〈표 19〉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에 대한 만족 항목 / 빈도(583명) / 백분율(%)



3)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20〉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 20〉을 보면 '만족하였다' 라는 응답이 319(54.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165(28.3%)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6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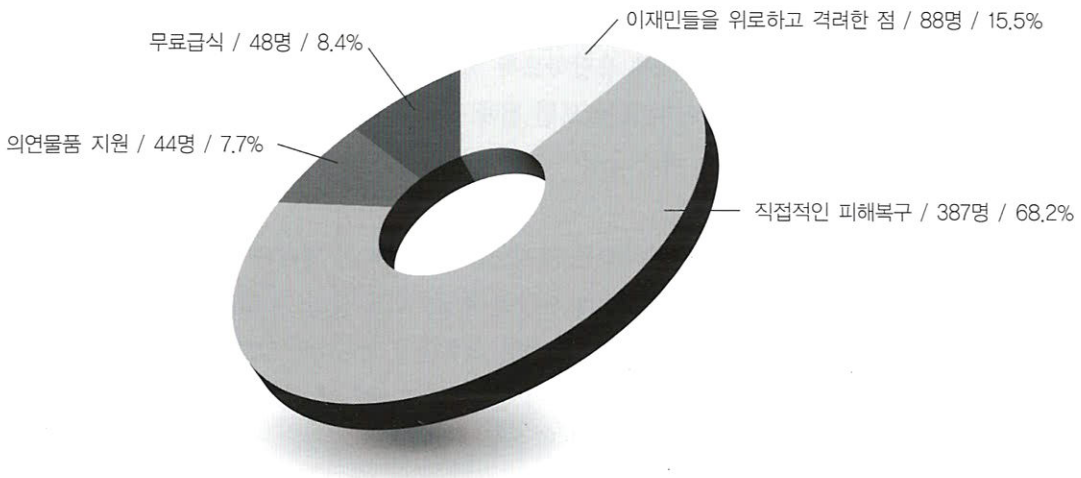
〈표 20〉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 항목 / 빈도(584명) / 백분율(%)



4)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활동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활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21>에 제시되어있다. 전체 응답자 567명 중 387(68.2%)명이 '직접적인 피해복구 활동' 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88(15.5%)명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점'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복구 활동만큼이나 이재민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위로와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이 노력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재민과의 접촉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 등의 심리적 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1> 도움이 되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항목 / 빈도(567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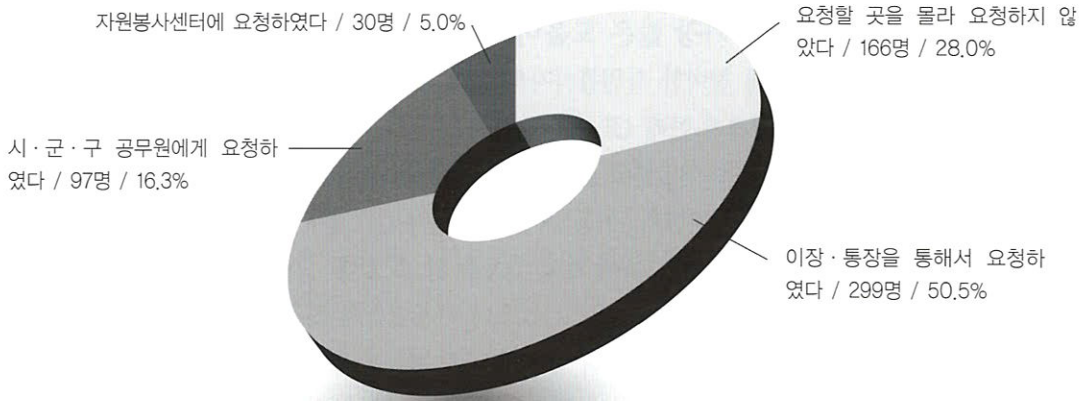


5) 자원봉사자 요청 방법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22>에 제시되어있다. 전체 응답자 592명 중 299(50.5%)명이 '이장, 통장을 통해서 요청하였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요청할 곳을 몰라 요청하지 않았다' 라는 응답이 166(2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이나 통장 등을 통한 요청이 많았다' 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함에 있어 이장이나 통장 등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청할 곳을 몰라 요청하지 않았다' 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자원봉사자의 운용에 관한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22〉 자원봉사자 요청 방법 항목 / 빈도(592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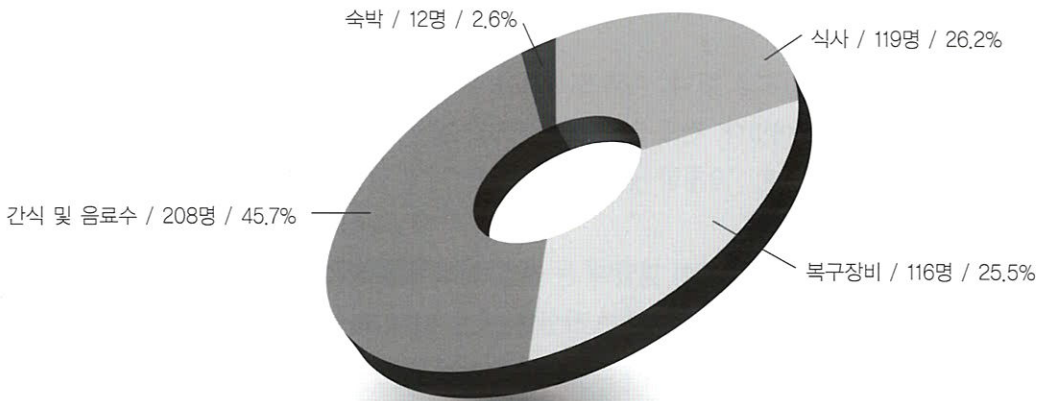


6)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물품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아래 〈표 23〉은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전체 응답자 455명 중 208(45.7%)명이 '간식 및 음료수' 라고 응답하였으며, '식사' 라는 응답이 119(26.2%)명, '복구장비' 라는 응답이 116(25.5%)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은 이재민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원(식사, 간식, 음료, 복구장비 등)도 제공받지 않는 것이 이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재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과 잠재적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표 23〉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한 것 항목 / 빈도(455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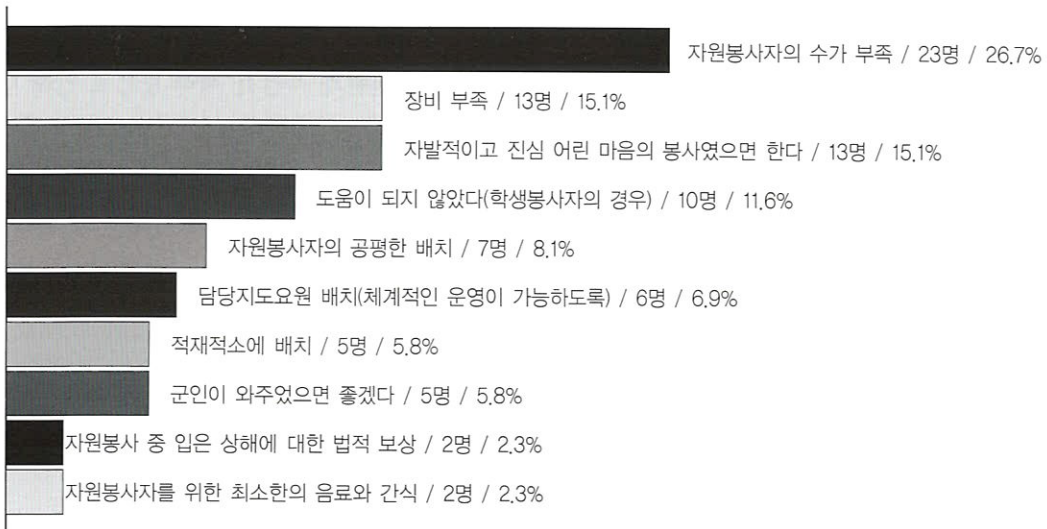


7)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아래 <표 24>에 제시되어있다. 전체 응답자 86명중, 23(26.7%)명이 '자원봉사자의 수가 부족' 이라고 답하였으며, 13(15.1%)명이 '장비 부족' 과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봉사 활동' 이라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23(26.7%)명이 '자발적으로 진심 어린 마음의 봉사였으면 한다' 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와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원봉사의 경우는 단지 봉사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진심으로 이재민을 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시간 때우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이재민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4>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항목 / 빈도(86명) / 백분율(%)



4. 기타 문항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방법, 조사 방법과 관련한 건의사항, 재해구호활동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재해대책본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 재해관련 교육의 경험 유무, 실시된 교육의 교육장소와 형태, 비상연락 전화번호의 확보여부와 종류, 재해를 통해 느낀 점, 재해복구기간동안 도움을 받아 고마운 분들에 대한 소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방법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720명 중 281(39.0%)명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55(35.4%)명은 '통장이나 마을 이장이 조사하였다' 라고 응답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102(1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는 피해발생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응답은 39%(281명)에 불과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항목(14.2%, 102명)을 포함하더라도 53.2%(383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원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장이나 통장 등이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재민들이 현장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표 25>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항목 / 빈도(720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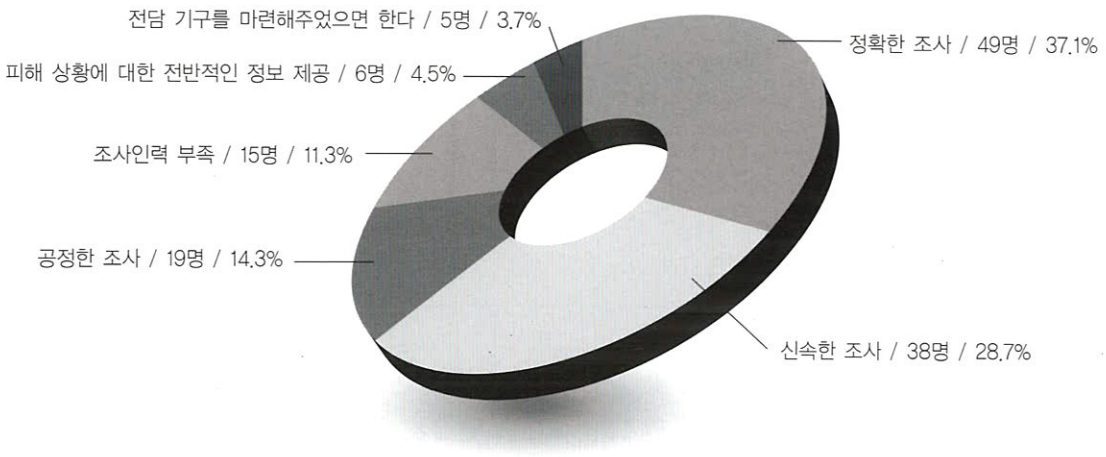


2)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방법과 관련한 건의 사항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방법과 관련한 건의 사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132명 중 49(37.1%)명이 '정확한 조사'라고 응답하였으며, 38(28.7%)명이 '신속한 조사', 19(14.3%)명이 '공정한 조사'라고 응답하였다. '정확한 조사'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객관성을, '공정한 조사'는 상대적 의미에서 객관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두 가지 응답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라는 응답이 68(51.4%)명임을 알 수 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재민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신속성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다. 즉,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신속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신속성 또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조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방법과 관련한 건의 사항 항목 / 빈도(132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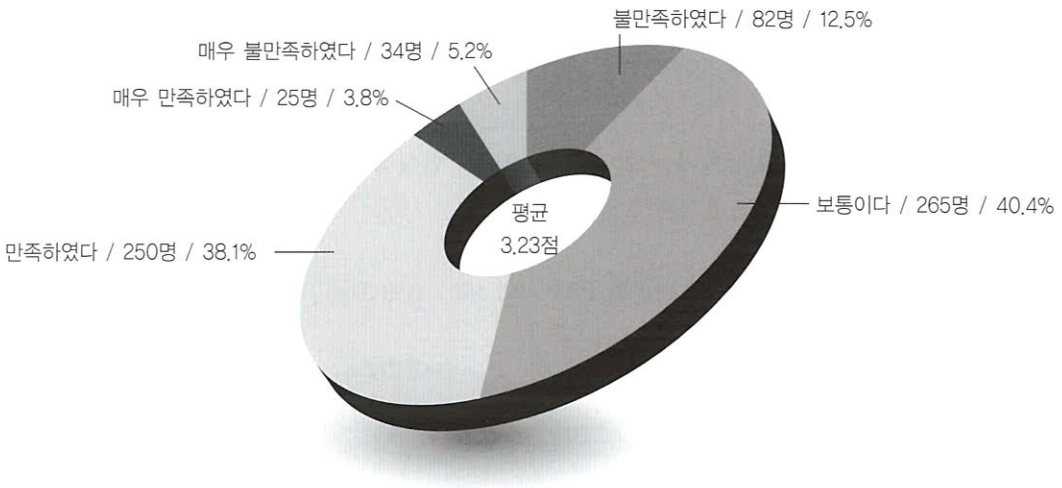
3)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재해 구호 활동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7>을 보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65(40.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였다'라는 응답이 250(38.1%)명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2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의연금과 구호물품의 배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의연금과 의연물품의 배분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는데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이재민들의 신뢰도가 높다면, 의연금과 의연품의 경우, 담당공무원을 통해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또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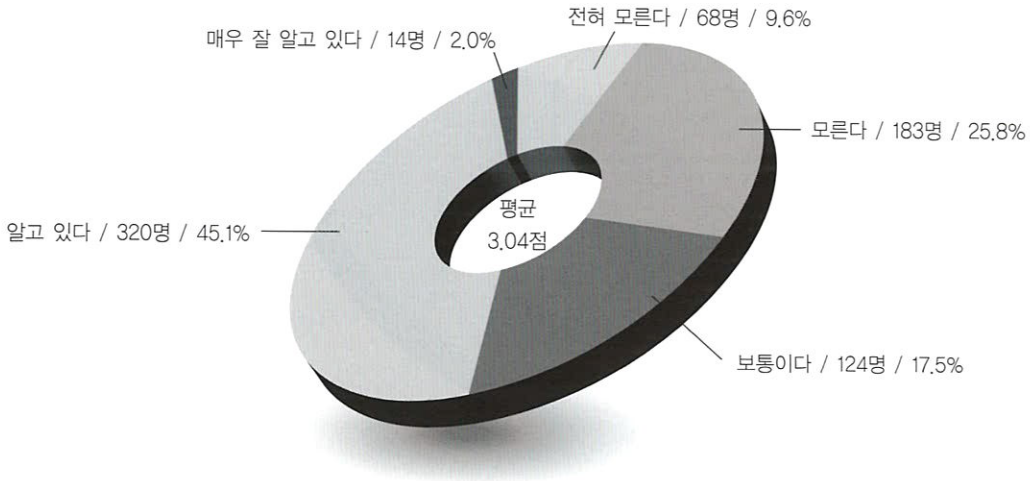
<표 27>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항목 / 빈도(656명) / 백분율(%)



4)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인지도

재해 대책 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혀 모른다' 면 1점, '모른다' 면 2점, '보통이다' 면 3점, '알고 있다' 면 4점, '매우 잘 알고 있다' 면 5점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28>에 제시되어있다. 아래의 <표 28>을 보면 '알고 있다' 라는 응답이 320(45.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른다' 라는 응답이 183(25.8%)명으로 나타났다.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인지도 평균은 3.04점으로 나타났다.

<표 28>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인지도 항목 / 빈도(709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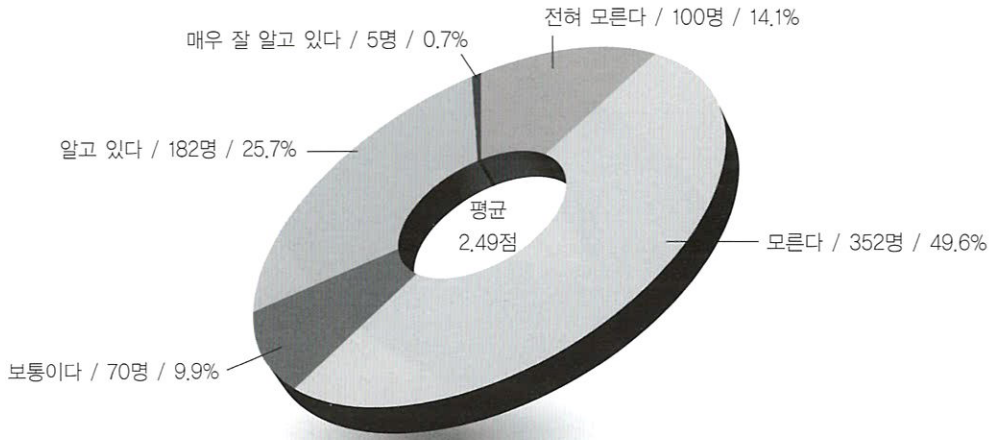


5)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5점 척도(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29>에 제시되어있다. 아래의 <표 29>을 보면 '모른다' 라는 응답이 352(49.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다' 라는 응답이 182(25.7%)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 평균은 2.49점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재해 발생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수급 등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전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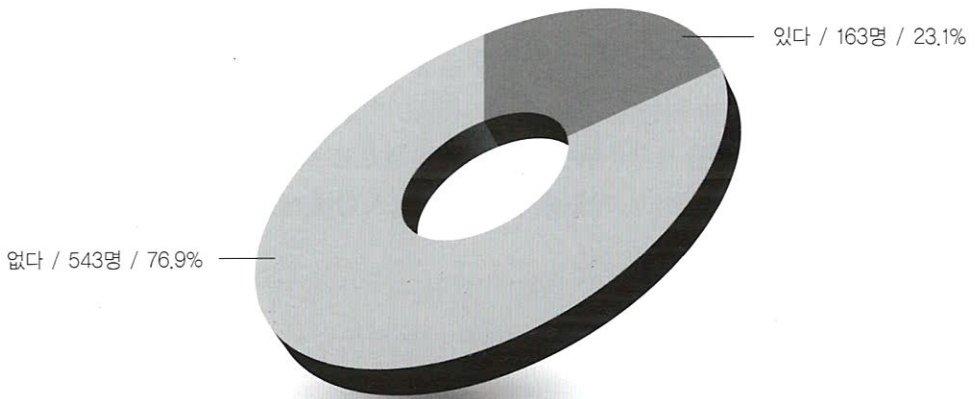
<표 29>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 항목 / 빈도(709명) / 백분율(%)



6) 재해대피요령 및 재해예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해대피요령 및 재해예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나 정보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3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706명 중, 163(23.1%)명 만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543(76.9%)명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30> 재해대피요령에 대한 교육 유무 항목 / 빈도(706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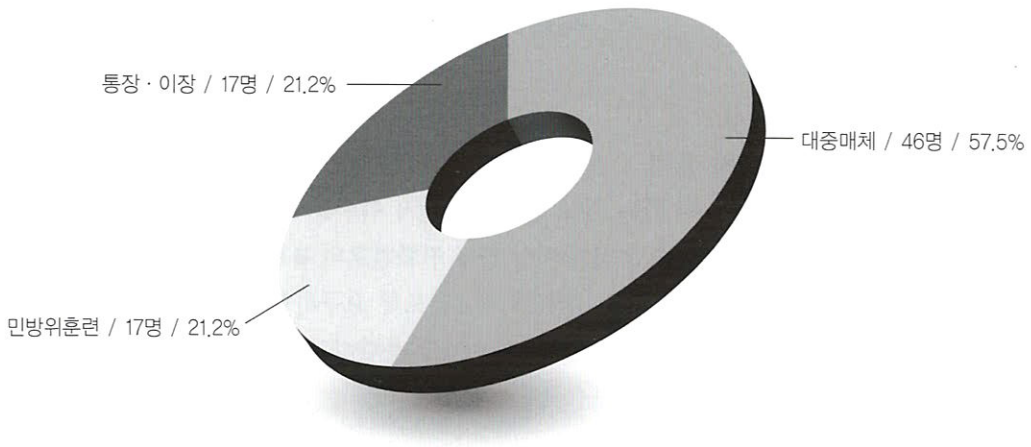
7) 재해대피요령 및 재해예방법에 대한 교육의 실시 형태

재해대피요령 및 재해예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를 묻는 위 문항에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교육이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아

래 <표 31>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 80명 중, 46(57.5%)명이 '대중매체' 라고 응답하였으며, '민방위 훈련' 과 '통장·이장을 통해서' 라는 응답이 각기 17(21.2)명으로 나타났다.

재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에 대한 조사에서 30.6%의 사람들이 '재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필요성' 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직접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평상시 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1> 재해대피요령 및 재해예방법에 대한 교육의 실시 형태 항목 / 빈도(80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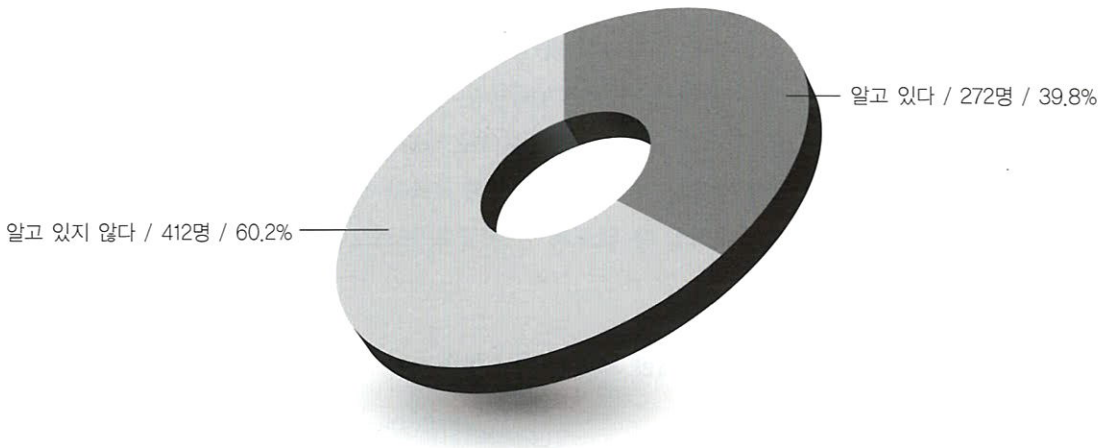


8) 비상 연락 전화번호의 인지 여부

재해 발생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알고 있다' 라는 응답이 272(39.8%)명인 반면 '알고 있지 않다' 라는 응답은 412(6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발생시 적절한 초기 대처는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게되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입장에서는 신속한 도움을 구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 연락 전화번호의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8%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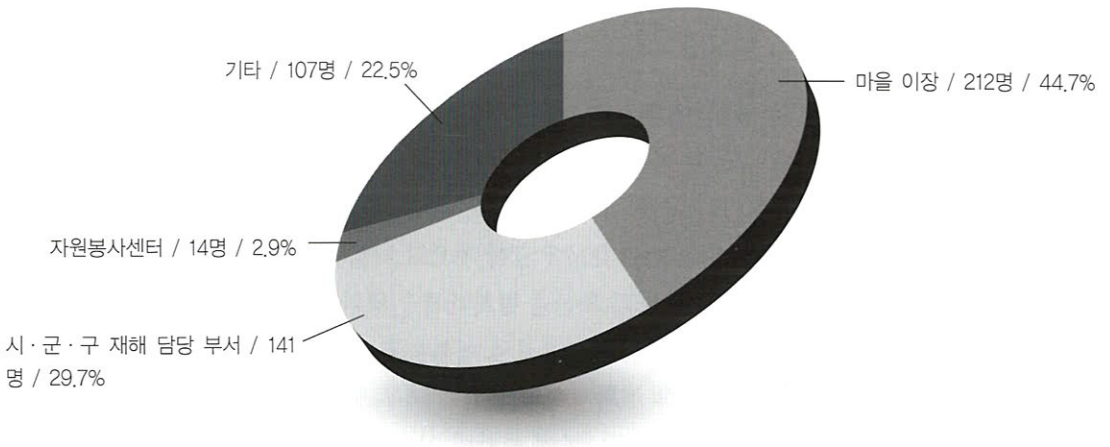
〈표 32〉 비상연락전화번호의 인지여부 항목 / 빈도(684명) / 백분율(%)



9) 비상 연락 전화번호의 유형

재해 발생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의 인지 여부를 묻는 위 문항에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상 연락 전화번호의 유형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제시된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212(44.7%)명이 '마을 이장'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41(29.7%)명이 '시·군·구 재해 담당 부서' 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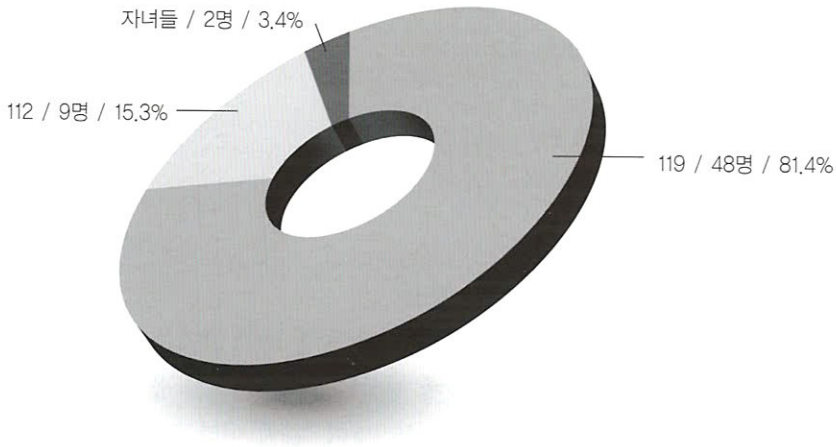
〈표 33〉 인지하고 있는 비상 연락 전화번호의 유형 항목 / 빈도(474명) / 백분율(%)



10) 비상 연락 전화번호의 기타 유형

재해 발생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전화번호의 유형을 묻는 위 문항에서 '기타'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인지하고 있는 전화번호 유형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아래 <표 34>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조사 응답자 59명 중, 48(81.4%)명이 '119'라고 응답하였으며, 15.3%에 해당하는 9명이 '112'라고 답하였고, 2명은 '자녀들의 전화번호'라고 응답하였다.

<표 34> 비상 연락 전화번호 기타 유형 항목 / 빈도(59명)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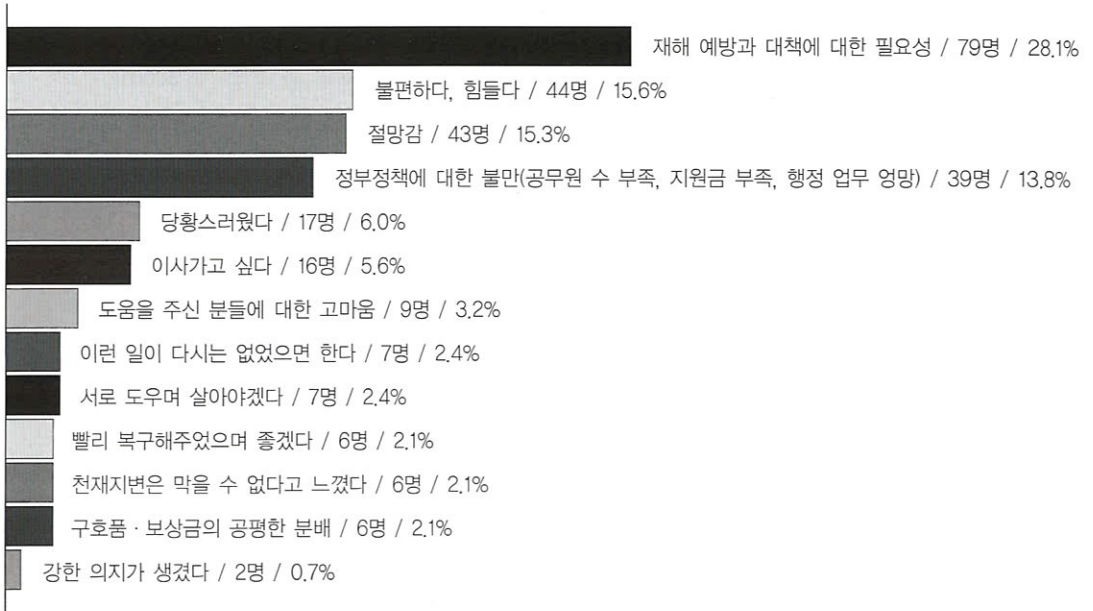


11) 재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재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자유 기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내용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291명중 79(30.6%)명이 '재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4(15.1%)명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절망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3(14.8%)명으로 나타났다.

재해로 인해 '재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필요성(79명, 30.6%)'을 느끼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9명, 3.1%)'을 느끼기도 하지만, '힘들다(44명, 15.1%)', '절망감(43명, 14.8%)', '당혹스러움(17명, 5.8%)' 등을 느낀다'는 응답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 발생 후,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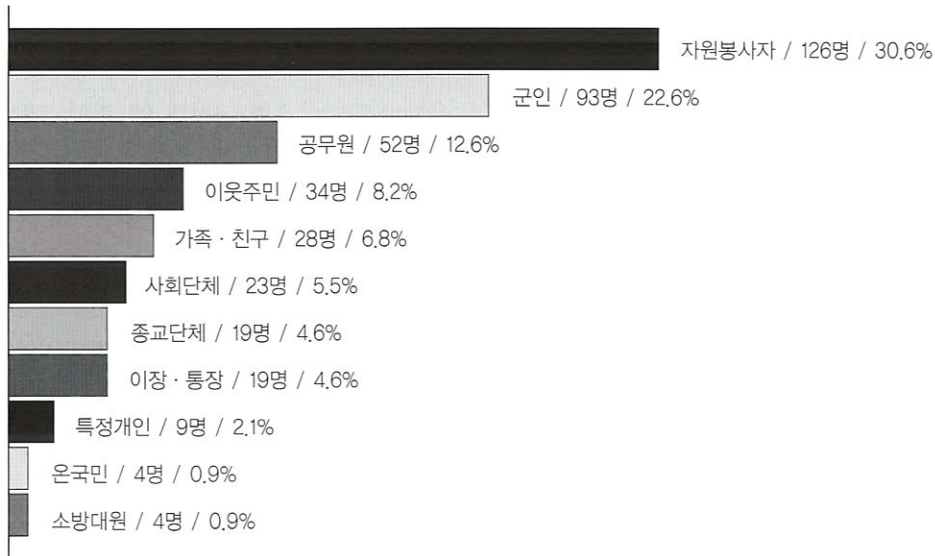
<표 35> 재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 항목 / 빈도(281명) / 백분율(%)



12) 재해 복구 기간 동안 고마운 분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재해 복구 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 고마운 분들에 대해 자유 기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262명 중, 126(30.6%)명이 '자원봉사자' 라고 응답하였으며, 93(22.6%)명이 '군인'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의 재해 복구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6> 재해 복구 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 고마운 분 항목 / 빈도(411명) / 백분율(%)



III

본 조사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조사는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서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조사는 몇 가지 한계로 인해 해석상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조사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재난·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대처는 재난·재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본 조사 연구 결과는 태풍이라는 제한된 재해에 국한되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유형의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태풍 관련 재난·재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료 수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협회는 전국의 언론사가 주축이 되어 1961년 7월 전국수해대책위원회로 첫걸음을 내딛었고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재해복구와 이재민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이후 40여년동안 7000여억원이상의 구호비와 총 3000여만점(4000억원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등 국민과 재해, 재난피해자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왔고 명실상부한 민간 재해구호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2002년 재해구호법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개칭, 법정단체로 거듭나면서 정부와 역할분담을 통한 의연금품모집 및 관리, 배분은 물론 재해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교육지원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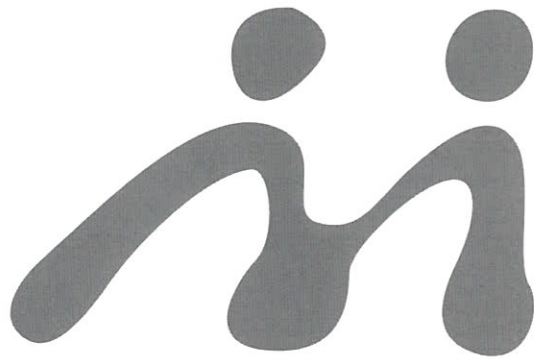
◆ 하는일

- 재해의연금품모집 및 배분
 - 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연금품 모집
 - 기탁 의연금품 관리 및 배분
- 구호물품 비축과 지원
 -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를 위한 구호물품 준비와 물류센터 운영
 -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
- 재해구호 연구조사 및 홍보
 - 재해구호에 관한 연구 조사 활동
 -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을 통한 선진화된 재해프로그램 개발
 - 기탁자 및 수혜자를 포함한 대국민 홍보활동
- 재해구호자원봉사등 재해구호활동
 - 협회 소속의 재해구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재해구호 교육 관련사업

◆ 응급구호세트지원

- 재해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엄선, 세트화하여 지원
- 재해발생시 응급구호세트 신속지원 가능한 체계적시스템완비

* 의연금품 모집, 응급구호세트,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문의
전국재해구호협회(www.relief.or.kr) 02-3272-0123



재해구호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연구책임자 : 김효창

발행일 : 2004년 4월

발행처 :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Disaster Relief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Tel:(02)3272-0123 / Fax: (02)3272-0122
www.relief.or.kr